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4. 11 ~ 2021. 4. 24 제245호



▲ 인도의 한 거리에서. 제공: WMM

네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많은 짐을 끌고 온 것일까? 맨발의 남성이 자신의 몇 배나 돼 보이는 무거운 짐을 끌고 힘겹게 걷고 있다. 그 광경이 기이했는지 반대편 차에 있는 남성이 그를 쳐다본다. 지쳐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 고된 삶이 엿보인다. 인도 하층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카스트제도는 아직도 인도

를 지배하고 있다. 죽음으로 그 계급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어쩌면 늙어서도 저 수레를 끌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수레보다 더 무서운 죄의 짐을 끌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의 멍에를 끊어내지 않았다면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람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이 모든 영혼에게 들리지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람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이사야 40:2) [GPNEWS]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확정... 왜곡된 성교육 우려

교회와 가정에서 대응방안 마련해야

다음세대를 성혁명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젠더이데올로기 옹호자들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트랜스젠더 개념과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차별 금지 항목을 추가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급 학교들은 동성애·트랜스젠더 개념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차별·혐오 없는 학교’는 종합계획 5대 정책과제 중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한다.

최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차별 금지 항목을 추가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급 학교들은 동성애·트랜스젠더 개념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차별·혐오 없는 학교’는 종합계획 5대 정책과제 중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한다.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해당하는 2기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지침이 첨부돼, 일선 학교들은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해당하는 2기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지침이 첨부돼, 일선 학교들은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서는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해 성소수자의 피해 학생을 상담·조사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계속된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에는 삭제됐다. 이에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초안에 비해 중요한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한국교회연론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 교육강화와 편향적 정치교육을 일선학교에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참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불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연론회는 또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한데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이런 것에 대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음세대를 반윤리적, 반도덕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신명기 4:10)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9)

‘사랑’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부모님 말을 듣는다 해도, 머리가 커지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제 갖 스물이 넘은 두 사람이 만나 손을 꼬옥 잡고, 한겨울 그 추운 한강변을 오들오들 떨며 걸 으면서도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걷고 또 걷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마음이 감동하고 동기가 부여되어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도 있는데, 바로 ‘두려움’과 ‘의무감’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사람들은 아주 잘 움직입니다. 군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는 외부에 있어서 그것이 사라지면 절도 있는 삶도 무너집니다.

다. 군대를 제대하면 군기가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무감’이나 ‘사명감’도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효과적인 동기이지만, 동기가 여전히 외부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동기가 내부에 있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다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게 너니까, 너라서, 널 사랑해.”



일러스트=김경선

이렇게 존재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미얀마 성도들, 무력진압 앞에서 기도하며 사랑의 시위



▲ 미얀마 친족 기독교인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반쿠데타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으로 경례하는 친족 주민들. 출처: persecution.org 캡처

군부 쿠데타로 내전 발발의 위기가 감돌고 있는 미얀마에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군부의 무력진압 앞에서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시위를 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중순 미얀마의 소수민족 친족이 거주하는 친족의 마푸비 마을에서 주민들과 무장 군인·경찰이 대치상태에서 주민 중 한 명이 “사자 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마푸비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눈을 감은 채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으며, 군경은 뒷짐을 진 채 주민들을 경계할 뿐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심도시 양곤 인근에서 사역하다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A선교사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시위 현장에 성경책을 가져가거나 길에 엎드린 채 성경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위를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

지고 있다. 친족 주민들이 촬영하고 한인 선교사가 자막을 붙인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무기도 없다. 단 하나 주님을 믿는 마음만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한 주민이 호소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 달라.”며 군인과 경찰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기도하던 일부 주민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 올리며 미얀마 군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세 손가락을 펼쳤다. 이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뜻으로 사용된 손짓이다.

한편, 기독교인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A선교사의 교회에 다니는 현지인 B씨는 “군부에서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해 쿠데타 이전과 달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감시가 워낙 심해 발각되는 순간 가차 없이 잡아간다.”고 전했다. B씨는 가정예배 후 A선교사와 통화한 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얀마, 내전 발발 위기 “학살·공습·난민 발생 중”

미얀마에서 쿠데타 군부의 시위대 학살과 소수민족 무장조직에 대한 공습이 잇따르면서 내전이 발발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난달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진압으로 510명 이상이 사망했고, 16개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시민들이 연합하여 군부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미얀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내전으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 일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성당 인근서 ISIS 추종단체 자폭테러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의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 용의자 2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추종체인 ‘자마 안사룻 다올라(JAD)’ 조직원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테러범 2명이 사망했고, 적어도 19명이 다쳤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의 비중이 87%, 기독교 신자는 9.9% 수준이다.

살해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적은 무리를 보호해주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무슬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국내외 비판 속 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시행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땅으로 지정하고, 북한은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정부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정된 북한 주민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GPNEWS]

남침례교회, 불법 이민자에 재난 구호 봉사... 이민자 급증에 난색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남침례 텍사스 총회(SBTC)산하 교회와 재난 구호 봉사자들이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섬기고 있지만 최근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봉사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기독교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수십 년간 난민들을 섬겨온 웨스트 브라운스빌 침례교회의 카를로스 나바로(Carlos Navarro) 목사는 2019년 이후 8200명의 중남미 망명 신청자들에게 성경과 음식, 의류,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했으며 3245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예전보다 3배나 더 악화됐다. 브라운스빌 지역에서 하루에 200명 이상을 목격했다.”며 “국경 관리인들은 매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200명을 석방하면, 그곳에서 (불법 이민자들은) 뉴욕, 캘리포니아, 보스턴, 플로리다, 미주리로 간다. 매일 점점 더 많이 밀려오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버스 정류장에 가판을 설치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 줬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 성도들이 많아, 활동



▲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의 불법 이민자들. 출처: borderpartnership.org 캡처

은 전면 중단됐다.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로 들어오는 이주민은 하루 평균 500~8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코로나 양성 반응은 5~1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인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확진률이다.

한편, SBTC 자원 봉사팀은 지난달 24일 델 리오 소재 이민자 석방 센터에도 구세군의 식량 지원 사업을 돕기 위해 배치됐다. 지원팀 관계자는 “이민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이 단체를 지원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텍사스 일대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한 망명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역대 최고치로 1월에 비해 30%나 증가한 수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이 땅의 모

든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난민으로 태어난다. 성경도 난민을 긍휼히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미의 난민자 유입을 지나치리만치 방임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국경 장벽 건립을 중단하는 등 난민들의 입국을 부추기는 듯한 정책으로 난민 희망자들의 무단 국경 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미국 시민권자 외에도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정책을 펼쳐, 이들 난민들의 표심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선도국답게 편벽됨이 없이 정직한 정책을 펼치도록 기도하자.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4월 12일 ~ 4월 24일

- 4월 12일 ~ 4월 17일 4.12(10시)~13(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 (홍**)010-3191-8622, 4.12~4.1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12~4.16(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12~4.17(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13~15(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4.13, 15~17(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16(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4.16(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16(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적은교회(강**)010-7129-7224, 4.16~17(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 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2교회 진행중.

- 4월 19일 ~ 4월 24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4.19(10시)~10(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4.19~23(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19~24(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20(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20,22~2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22(0시)~23(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 공동체(정**)010-3697-0641, 4.23(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23(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적은교회(강**)010-7129-7224, 4.23~24(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트랜스젠더, 우울증·불안으로 41%가 자살 시도... 전통적 성윤리 교육 강화돼야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고찰' 포럼

자신의 성적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트랜스젠더의 4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랜스젠더 청년들의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일반인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에서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과)는 트랜스젠더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병발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음을 감안, 개방적인 성교육을 제한하고 전통적인 성윤리와 가족체제를 옹호하는 성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장애를 겪기 쉽다고 말한다. 이런 고립과 배척감은 자존심

을 저하시키고 학교를 혐오하게 하고 부모와 가족과 관계 역시 심각하게 손상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는 스스로 자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갈등과 죄의식과 수치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전환치료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아기 트랜스젠더는 전환치료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환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은 자신의 성별(몸) 때문이며 이것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환이 안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는 수술 직후에는 만족해하지만, 삶의 현실은 기대만큼 바뀌지 않고 조만간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춘기 무렵 '성적 자기결

정권'을 존중하여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이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자신이 시술한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성호르몬을 투여하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비윤리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마저 억압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문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이 결코 성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문제는 수술이라는 신체적 변화로 해결할 수 없으며 건강한 몸을 훼손할 뿐이다.

민 교수는 이런 트랜스젠더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의 문제점을 비롯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다양한 의학적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주



▲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고찰' 포럼 참석자들. 제공: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장한다. 이는 결국 의학에서 언론자유의 침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LGBT 치료를 못하게 해, 그들의 회복 가능성마저 차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치료 금지의 인권유린이다.

또한 LGBT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가져오며, 이 현상은 성혁명적 현상과 더불어 인류 사회에 생명현상,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상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성혁명적 현상들은 불륜 증가, 이혼 증가, 낙태 허용, 안락사 허용, 동성혼 합법화, 가족체제 붕괴, 성도착적 행위 증가, 성범죄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송홍섭 성과연 연구위원(산부인과 의사)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이들 중 일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성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가역적인 전환의 후회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수술이 성공적이며

라도 성기능의 장애는 필연적이며 배뇨, 배변 기능의 이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수술은 대부분이 비가역적이며 절대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환치료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 전환치료를 원하는 LGBT와 같은 성소수주의자(성소수자)들에게 치료를 강제로 금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성혁명 사조로 인해 폭력과 자살의 증가는 물론, 출산율 감소, 낙태의 증가, 안락사 정상화 등등 생명 감소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사랑-가정이 축이 되는 성윤리는 생명윤리이고 의학윤리이자 기독교 윤리이다. 먼저 교회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기도하자. [GPNEWS]

기획 | 무슬림과 함께 사는 이야기 (3)

차별받는 무슬림 여인들

모스크에서 정오 기도회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려온다. 금요일은 공휴일이고 금요일 기도회는 설교와 기도로 진행되기에 좀 더 크게, 더 길게 기도회를 한다. X국 모든 교회 앞이나 주변에는 모스크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회를 알리는 확성기는 사방으로 향하고 있다. 교회 방향으로 가장 큰 확성기(?)가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크게 들린다.

우리가 금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거리로 나설 때쯤, 모스크의 기도회는 시작된다. 금요일 정오 기도회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참석한다. 그 많은 모스크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보통 일반 건물 1층에 있는 기도처도 찬다. 그래서 모스크 앞 길가에 몇 줄로 줄 줄을 지어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모든 거리에서 볼 수 있다.

모스크에서 기도하려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 위에 돛자리를 깔아 놓으면 그 길은 지나갈 수가 없다. 자동차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한

다. 걸어서 지나야 할 때는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일행 중에는 여자도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시대에 여자들은 기도하고 있는 남자들 곁으로 걸어가 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남자 곁으로 걸어가면 기도가 무효가 되어, 그 남자는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무함마드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에 무함마드의 두 번째 부인 아이샤(무함마드와 6살에 정혼하고 9살에 결혼)는 항의 표시를 했다고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도를 무효화하는 것을 내 앞에서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개와 나귀와 여자로 인해(만일 그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면)무효화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즉, 여자들)를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 체계를 알기에 되도록 기도시간에 지나가지 않으

려하지만, 거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 안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 보통 때는 집에서 개인기도용 러그를 깔고 한다. 모스크에서 여자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뒤쪽에 가려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X국에 살면서 금요일 기도회에서 내가 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여자들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볼 수 있었던 여인들은 과부를 나타내는 복장인 검은 옷을 입은 도움이 필요한 몇몇 여인들이다. 그들은 모스크 길 한쪽 끝에 앉아 있거나, 조금 떨어진 길 한켠에서 무엇인가를 파는 여인들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지도 못하고 한쪽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든다. 얼마나 가엽고 불쌍한 여인들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 그들을 올려드리곤 한다.



▲ 이란의 무슬림 여성들. 출처: unsplash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할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을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으셨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귀신들린 여인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손 마른 여인의 손을 펴 주셨다.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보시고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눅 8:48)고 하셨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다(눅 8:1~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을 결코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으셨다. 항상 같은 자

리에서 같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다(막 3:35).

무슬림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자.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무슬림 여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도 참 하나님을 믿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열방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GPNEWS]

김민음(북아프리카 사역자)

기획 | 창조 이야기 (52)

진화의 증거는 하나도 없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하고 있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아주 헌신된 추종자들은 모든 것이 관촬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한다.

진화론은 두 가지 오류 있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변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관찰된 적이 없다. 두 번째로 '자연선택이 특정한 것을 생존시켜 집단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진화론은 사실상 죽음의 종교다. 진화가 성공하려면, 한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했을 때 나머지 동물들은 다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향상된 유전자가 유전자 암호 속에 다시 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성경이 말하듯이 사람이 죽음을 세상

에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진화론의 주장처럼 죽음이 사람을 세상에 데려왔는가? 누군가는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돌연변이는 집단의 다양성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돌연변이는 일어난다. 그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진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돌연변이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정보들이 뒤섞이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실제로 다리가 다섯 개 달린 황소가 있다. 그러나 진화는 아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이다. 황소 안에는 다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었고, 하나를 엉뚱한 곳에 만들었을 뿐이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뒤섞인 정보이다. 짧은 다리의 양 역시 새로운 정보는 없다. 또한 대에게 제일 먼저 잡아먹힐 테니까 말이다. 머리가 두 개 달린 양, 머리 두 개 달린 거북이도 돌연변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롭지 못하

며, 살아남을 수 없다.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날개가 네 개 달린 파리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날지 못한다.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희귀한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다른 돌연변이처럼 해롭다... 이로운 돌연변이는 자연선택을 위한 원료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좋은 것의 사진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운 돌연변이는 하나도 없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와 자연선택은 동반한다, 자연선택이 진화를 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자연선택은 ‘선택’한다. 아무것도 창조하지는 않는다. 자연선택이 안정시키는 힘일 수는 있어도 창조적인 힘은 아니다.

진화론자들은 ‘적자생존’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적자의 생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자의 생존조차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 “왜 이것이 생존했나요?”라고 물으면 “적



▲ 머리 두 개 달린 돌연변이 거북이. 출처: 유튜브 채널 MBN News 캡처

자니까 그렇지. 적자가 생존하지.” 라고 답한다. 이어 “그것이 적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라고 되묻는다면 “생존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고래가 물고기 떼를 지나가면서 그 물고기들의 80%를 먹으면 이것은 적자의 생존이 아니다. 사실상 운이 좋은 것들이 생존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틀린 결론에 도달한다.

과학자들은 초파리로 실험을 했다. 초파리들을 실험실에 넣고 핵을 쏘고 전자파를 쏘고 엑스레이를 쏘는 등 온갖 종류의 못된 짓들을 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아기 초파리들을 얻었다. 어디로도 날아

가지 못하는 날개가 구부러진 초파리, 날개가 아예 없는 초파리 등 돌연변이 초파리들을 만들어 낸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초파리는 초파리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도 되기를 거절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또 “관찰된 모든 돌연변이는 원래 초파리보다 열등한 초파리를 생산했다.”고 했다. 좋은 관찰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파리가 그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진화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이것은 나쁜 결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신 것을 진화론자들이 실험실에서 망치는 것뿐이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GPNEWS]



선교 통신

“이슬람 여성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



▲ 인스타그램. 출처: unsplash

지난해 졸업과 함께 친구들과 다음 세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캠퍼스 사역에 대한 기대를 품고 O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바뀌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곧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길어지며 캠퍼스 사역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졌다. 그때 미디어선교를

접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보기로 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나와 친구들은 각자 이곳에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현지인들과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시작했다. 이곳에는 한국 청년이 희귀하다보니 신기해하며 관심을 갖고 다가온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은 주로 한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었다. 한류는 선교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요즘 O국에서는 케이팝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이 큰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 춤추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덕분에 많은 친구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어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 아래서 아파하는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친구부터 모든

관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들까지 다양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던 약혼이 깨지고 동시에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며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친구는 대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분노에 휩싸여 어린 아들을 폭행하는 삼촌을 막았다는 이야기, 아버지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친척 오빠를 보게 된 이야기 등 기사로만 보았을 법한 사건, 사고들이었다. 가족 간의 불화, 부모님의 이혼, 자유 없는 결혼부터 외출까지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보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사역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주셨다. 어느 날 한참 나이가 많은 언니와 만나 학교 과제를 했다. 그날 언니는 자신의 가족과는 관련이 없는 외국인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언니의 상황과 어려움을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팠고, 무슨 말을 해주어야 위로가 될까 고민도 많이 했다. 결국 어떤 인간적

이고 따스한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자고 결론을 내렸다. 많은 일을 겪은 언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한 명과의 만남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준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을 나누기도 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비록 직접적으로 복음을 나누기는 힘들지만, 주님이 어린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그분의 향기를 흘러보내고 계심을 믿는다.

코로나로 우리가 기대했던 캠퍼스 사역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방법인 SNS로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GPNEWS]

O국=하임

복음의 능력

어떤 십자가인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주관적 십자가’로 만들지 않고 ‘객관적 십자가’로 만들어버렸다. 또 어떤 이는 십자가를 ‘내면적 십자가’로 만들지 않고 ‘외형적 십자가’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을 ‘체험적 십자가’가 아닌 ‘제도적 십자가’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어떠한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두 죄수(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사이에서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듯이, 현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멸망 받은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을 끝장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끝장낼 것이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능력이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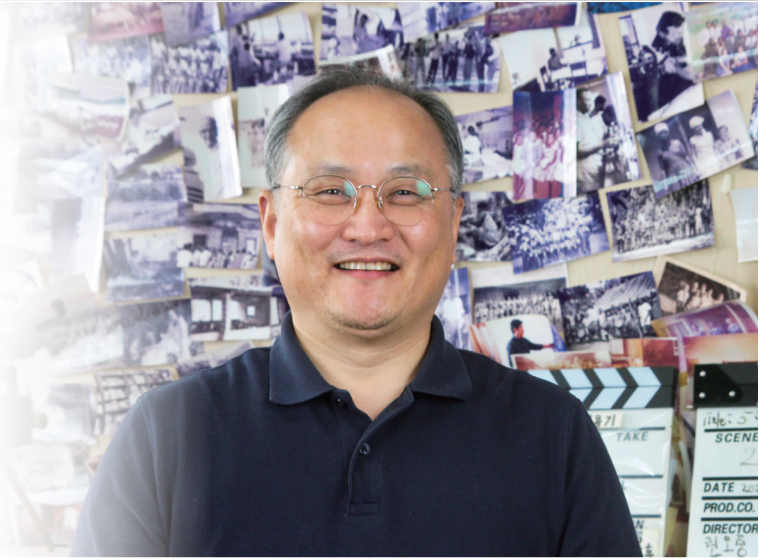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영화로 변화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김상철 목사(파이오니아21)



© 복음기도신문

취재진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상철 목사는 직접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 물을 끓였다. 한 단체의 대표가 직접 타 준 커피 맛은 푸근함과 겸손함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감독이 아니라 목사라고 소개했다. “저의 정체성은 목사예요. 이곳에는 음악 감독님도 있고 배우도 있지만 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영화감독의 옷을 입고 20년간 파이오니아21을 섬겨온 김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목사님이 영화감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사역의 첫 시작은 이메일 전도였어요. 전도를 해 본 사람은 아는 건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먼저는 저에게 채워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 얼굴이 바뀌죠. 은혜 받은 사람은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나이가 많다고, 아프다고, 내성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이메일 전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메일에다가 영상을 첨부하면 더 좋겠더군요. 그래서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시 영화 타이타닉이나 클리프행어로 전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화에 대한 저작권법과 저변의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체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메일 전도용 영상 제작으로 시작

- 그러면 영화 제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던 2002년도에 영상사역기관인 파이오니아21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인터넷과 영상을 통해 전도와 양육을 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07~8년도에 배우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살을 주제로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요. 마침 세계 800만 원이 있었어요. 제겐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자살을 주제로 하는 영화 두 편을 제작하는 데 전체 제작비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게 영화를 제작하는 데 첫 계기가 됐어요.”

- 그렇군요. 그런데 영화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오니아21 단체도 세우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파이오니아21은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겪었던 경험이 동기가 돼 세우게 됐어요. 담임목사님이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적당한 영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며칠 동안 영상을 찾았어요. 다운로드를 하려니까 5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례비도 적었는데 너무 간절하니 5만 원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영상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결정할 게 있어요. 자료 찾기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비싼 자료를 누가 사겠나. 돈이 없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파이오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영화를 하게 됐어요. 영화 촬영지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었는데, 내전이 진행 중이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제가 감독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저의 영화 감독의 시작이었어요. 전 영화를 만들면서도 목회의 연장선에서 한번도 넘어선 적은 없어요. 사역자들이 목회현장을 떠나거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가 없으면 반드시 사역은 쇠퇴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게는 중독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것이 제 목회의 원천이 됐습니다.”

영화는 나의 목회현장

-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도 궁금합니다.

“제 꿈은 교사였어요. 그러나 집안 환경이 어려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꿈이 좌절됐어요. 아버지는 아프셨고, 저는 중국집 배달, 인쇄공, 용접공, 벽지 공장, 길거리에서 옥수수도 팔았어요. 그래서 학업은 17살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우울했어요. 교사의 꿈이 좌절됐으니까요. 계속 힘들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

게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게,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믿을 거 같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 파이오니아21에 대해 소개하실 때 ‘영화 한 편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셨나요?

“영화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영화를 설교처럼 만들어요. 그렇다고 설교하듯 시나리오를 쓰진 않고,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가서 촬영하고, 촬영하다 보면 모아져요. 제가 만든 영화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결을 따라서 가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화를 만나서 변화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결국은 영화도 한 사람이예요.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우리 영화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사탄은 집요하게 한 영혼을 망가뜨리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의 핵심이 영혼이에요. 가끔 영화를 보고 선교지로 갔다는 이메일도 받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바꾸는 일에 제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화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삶이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감독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스태프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술 감독, 음악 감독, 배우,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합을 시켰을 뿐이에요.”

- 목사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중점을 두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교회가 나와야 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제자도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죠. 예술작품을 만들 때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그 영화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해요. 그러나 저도, 우

리 감독들, 배우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죠. 우리가 무너져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인 복음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핵심 목표예요.”

-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꿈이 좌절되었던 사람이예요. 수면제 70알을 두 번 먹어보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보기도 했어요. 누가 등에 칼을 찌르기도 하고 또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어요. 여러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또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힘들 때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이 살아 있느냐. 살아 있으면 나를 이렇게 뒀느냐.’고 하늘에다 샅대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 복음을 만나신 과정을 들려주세요. 그 간증을 들어야 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공부는 늦게 했지만 14살 때부터 논어, 맹자, 대학을 다 읽었어요. 아버지는 별자리 보는 법과 길 거리에 있는 약초를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21살에 직장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자기를 만나려면 교회 나와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죠. 1년 만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교회에 안 나갔어요. 제가 아내에게 고생 많이 시켰어요. 죽으려고 돌아다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해 놔으니까 집에 오라고 따뜻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우울한데 아내는 항상 밝았어요. 제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나와서 놀라게 하기도 했죠. 그걸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러나?’ 생각했어요. 아내도 고생

(6면에 계속)



▲ 스페인에서 촬영 중인 김상철 목사. 제공: 김상철 목사

니아21의 설립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론이나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교 졸업했으니 목회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사도 아니었죠. 저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러 고민들을 하던 중에 ‘잊혀진 가방’과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선택 - 잊혀진

여요. 결혼을 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목사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게다가 너무 갑급해서 교회를 찾아간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저는 밖에서 막일도 하고 어렵게 사는데 평온하게 설교 준비하시는 모습이 천국 같았어요. 그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5)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하면 너무 멀리 온 것을 느끼게 된다. 죄에 빠지는 건 순간인데, 한번 빠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면서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그게 되고 어느새 돌아보면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을 느낀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땅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먼 것이다.

돌아서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아야!’하고 결정하는 순간, 내 존재가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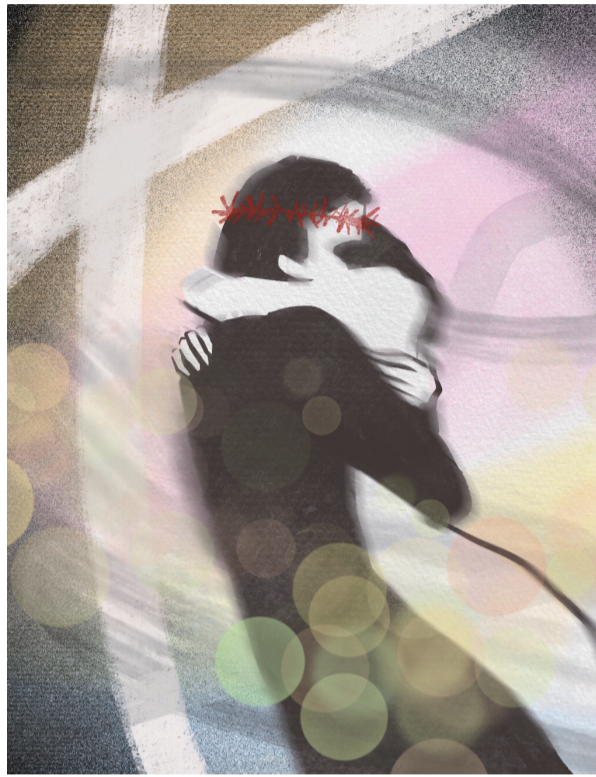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0-24)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돌이켜서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다.

한 걸음 갔다가 밀려난 걸음이 더 많은 것 같고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은 상황, 영적인 어려움과 충격을 받고 나면 다시 추스르기가 어렵고 복음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 감격들이 되살아나지 않는 듯하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는 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일러스트=이예린

놀랍게도 그 순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 혼자 힘겹게 가는 먼 거리 같아서 언제 갈

까 싶었는데 탕자가 돌이켜 방향을 잡은 순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을 맞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멀고 불가능해 보여도 방향을 돌리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저앉은 바로 그 때, 오직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저주 이후에 소망 없던 역사의 질곡 속에 우리가 항상 발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먼저 보았다는 말은 계속 기다렸고 항상 찾게 계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사 53:6).

우리를 보고 먼저 달려오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혹시 죽이려고 달려오나 불

안했는데 눈빛이 달랐다. 아마도 눈물이 범벅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찌할 줄 모르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맞더라도 잠깐 얘기 좀 들어주시라고 할까? 아님 옆어질까?’ 별의별 상상과 궁리를 다 했을 탕자가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끌어안는다. 후두둑 떨어진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고개를 못 드는 아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을 것이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때, 마음 중심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을 것이다. (2018년 4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품질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향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그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복음기도총서2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들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영화예요”

을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떠나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동기예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것이 영화죠.”

- 영화를 만들면서 변화되었다고요?

“제가 영화를 하면서 만난 두 분이 있어요. 그중 한 분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예요. 그분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에 만난 분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스스로 그만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들은 여럿 있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성장했어요. 가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당을 옮기고 싶더군요. 그래서 성도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예배당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어려워했어요. 새로 옮긴 교회는 차로 30~40분이 더 걸리는 위치였는데, 성도들은 그곳에 오려면 한 시간 이상 더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였죠. 아차 싶어 이사는 포기했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선교관련 특강을 하고 있는 김쌍철목사. 제공: 김쌍철목사



열심과 최선 아닌, 은혜로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최선을 다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 항상 시작은 은혜였는데 끝은 목마름이었고 절망이었다.

시부모님과 남편,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늘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섬겨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나의 실존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며 매달렸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만큼 하면 잘 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만이 아셨다. 몇 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는 시아버님을 섬기기로 했다. 주님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섬김은 끝이 없었고, 힘들 때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옛 생명을 죽고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주신 복음을 만났음에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안 되는 나 때문에

고통하며 펄펄 울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줬는데 왜 너는 대가를 바라니?”라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주인에게 밥상도 바라고 잘했다는 칭찬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되돌아보니 그때는 사랑이 아닌



일러스트=고은선

의무감이었고 칭찬받는 머리가 되고 싶었고, 그에 따른 대가지불을 바랬던 섬김이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저혈압으로 하루 동안 직장을 못 나가게 되면서 주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내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며 행동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걷어지고 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몸을 추스르고 나서 시아버님께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아버님은 오히려 내 오래된 중고차를 별써부

터 바꿔주고 싶었다고 하시며 새 차를 사주셨다. 주님은 나의 열심과 최선이 아닌 은혜로 아버님과 관계를 회복해주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의 감정과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39~41절 말씀을 주셨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했던 제게 마음의 돌을 옮기고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이미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며 이미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는 무엇이 믿음인지 알게 됐다.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만 진짜 믿음이다. 그 어떤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간다. “believe가 아닌 believe in!”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마라나타! [GPNEWS]

황선영



넌, 나의 영광 그 자체야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신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보너스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는 영원한 길을 보여주신다. “네가 성공해야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야. 넌 나의 영광 자체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GPNEWS]

그림 이수진



北서 자유아시아방송 사이트 접속 10배 급증... 코로나, 세계 정세 파악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엘리트 고위층의 인터넷 무제한 접근 권한으로 최근 북한 내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접속량이 증가했다고 RFA가 밝혔다.

RFA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북한에서 RFA 웹사이트에 접속한 횟수는 모두 174회. 이 중 지난해 10월까지는 매달 접속자 수가 0~5회 수준이었는데 11월 40회로 급증한 뒤 올 2월에는 접속자 수가 5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세계 정세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외 언론사의 기사와 정보 등을 취하려는 활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관심은

둔 RFA 페이지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북한 내 상황과 경제적 영향, 한미연합군 사훈련 등에 관한 기사 페이지였다. 또 웹사이트 접속 경로 가운데 87%는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이미 저장해 둔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바로 접속했으며, 12%는 검색엔진을 통했는데, 미국의 ‘구글(google)’과 러시아의 ‘얀덱스(yandex)’, 한국의 ‘네이버(naver)’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리코드드 퓨처’는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북한 엘리트 계층이 방문했거나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리코드드 퓨처는 지난해 2월 북한에서 증가한 인터넷 사용은 핵·미사일 기술을 습득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분석했

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스마트폰 이용자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최소 0.1%

정도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이는 사회 지도층과 그의 가족들에 해당한다. 모리우치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인터넷 통신량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300% 이상 증가했으며 주말이나 저녁시간보다 평일 낮 동안 접속이 확연하게 늘었다. [GPNEWS]

혜산시, “외부 통화자 모조리 잡아내라”... 김정은 지시

북한이 혜산시에 대해 외국산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잡아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달 23일 휴대전화 사용으로 계속되는 사진, 동영상 노출을 비롯해 국경 주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지시문을 혜산시 보위부에 내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국가기밀서류들까지 끊임없이 적국(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태에 대해 대단히 심려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지시문을 통해 보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사는 주민들이나 과거 브로커로 활동했던 주민들, 행동이 수상한 주민들을 놓치지 말고 조사해야 하며, 간부·보위원·안전원들도 예외로 두지 말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보위원들이 눈

에 쌍심지를 켜고 있어 실제 이 지시문이 내려진지 3일 만인 지난 26일 혜산 시내에서는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민 5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혜산 주민들은 “이번에는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전 방침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 걸려들면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다.”며 두려움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그간 보위부와 연계돼 활동하던 브로커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잠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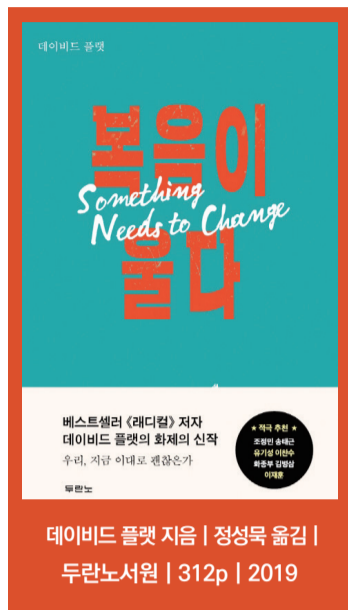


▲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출처: rfa.org/korean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데이비드 플랫 <복음이 울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복잡다단한 상황 앞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해 보았다. 책의 구성은 단순하다. 누군가 데이비드 플랫 목사에게 직접 히말라야로 한 번 다녀갈 것을 제안했고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트레킹을 할 여러 준비를 하고 마침내 제안한 사역자(애런)를 만나 함께 그의 사역을 둘러보는 것이다. 8일간의 히말라야 아웃리치라고 해야 할까?

한번은 비행기 옆자리에 인도 노동자가 앉았다. 그는 눈에 거즈를 댔는데 피는 거즈 위로 물어 나왔다. 왜 다쳤냐고 물어보니 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했다. 눈물이 났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인도에 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어려운 마음을 떨쳐냈다. 책을 읽으며 플랫 목사와 함께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인도 노동자를 만났던 그 때의 기억이 끈질기게 따라 붙었다. 그리고 그때 떨쳐낸 어려운 마음도 같이 되

살아났다. 도울 수 없다는 막막함과 도저히 가능도 안 되는 그들의 거대한 필요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내 자신.

복음이면 충분한가? 복음이면 다인가? 플랫 목사의 여러 고민 앞에 계속 내 자신에게도 묻게 되었다. 거대한 악의 고리, 가난의 굴레에 매여 성을 노리개로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꽃 같은 여린 영혼들,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에게 착취를 당하는 비참함. 당장이라도 그들을 착취의 그 현장에서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양심. 그러나 건져내면 몇 명이나 꺼내 올 것인가! 그리고 건져낸 그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도 사회에 맡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복잡다단한 상황과 문제들 앞에 복음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영혼의 완전한 구원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질문과 누가복음을 통한 플랫 목사의 묵상은 인간 영혼

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영혼의 완전한 구원이 필요하다. 비참, 가난, 공포, 질병, 고통 등 여러 상황의 필요는 영혼구원의 필요 앞에 부차적인 문제이다. 착실하고 꾸준하게 20년 동안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필요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역하는 애런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영혼의 문제를 함께 돌보시고 계셨다.

무언가는 변해야 한다. 무엇이 변해야 하나? 복음을 가진 자의 외침이, 그들의 기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헌신이 변해야 한다. 외침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며, 기도를 했다면 응답하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헌신했다면 진짜 드러야 한다. 히말라야의 많은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에 나는 통곡했다. 끝이 없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을 받은 자들의 무리에 끼워 주셨다는 은혜와 부르심의 감격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
복음을 가진 자의 외침이
그들의 기도가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변해야 한다.
”

히말라야에서 능욕 당하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사탄에게 능욕 당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으로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원제와는 다른 제목이지만 참 잘 정한 한국어 제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을 다 읽고 끝까지 잘 참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울게 되었다. 복음이 그들을 향해 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복음이 울다'라는 한국어 제목을 지은 건가 생각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아버지를 추억하다

선교사로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들어온 캄보디아 땅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보름 동안 격리생활을 했다. 이제 내일이면 격리된 장소를 나갈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흥뻑 젖어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연락을 받고 상기되었던 나의 마음은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지하 땅굴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맥박이 33까지 내려가서 내일 심장 박동기 장착수술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이며 전도자이신 아버지는 <영적각성>이라는 세 번째 책을 쓰실 때도 혈당이 700까지 올라가고 맥박이 30까지 떨어졌다. 그때도 응급실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약간 회복하신 상태에서 힘을 다해 책을 쓰셨는데 내일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응급처치로는 몸을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께 “지금 나이가 88인데 90까지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국이 너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심장 박동기를 달면 분명 2년을 더 사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이제 마지

막을 준비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지난해에 당신의 목회에 도움을 주셨던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 100만 원씩 전달해 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100만 원을 전해 주었다.

난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생활은 너무나 척박했다. 화장실이 없어 페인트 통에 변을 보고 가득히 차면 밭에 버리는 생활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사춘기였던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시절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당신을 도왔던 분들과 또 당신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섬겼더니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난 캄보디아에 오기 전 설날에 아버지와 함께 견과류를 먹었다. 그 견과류는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보낸 선물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선물을 먹으며 살아왔던 많은 날들을 이야기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의



▲ 출처: pixabay

죽음을 대비해 상조보험에 가입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변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설날 모임에서 자녀들과 손자손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셨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손에게 예언하며 축복하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자녀들 각자가 자신들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교사로 해외에 있으니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보았다. 아버지는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셨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셨다.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며 많은 고생을 하셨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셨다. 이제 아버지의 세대가 마감되고 있다. 이제는 너무도 불확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래 세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짐을 이어받는 것이 나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내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나는 아버지처럼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다. 눈물과 사랑으로. [GNPNEWS]

정성국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3. 18 ~ 3. 31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에심 김혜신 노승빈 박경희 박숙자 박현숙 서윤정 윤경석 이은주 이주선 장근혜 장미자 정금자 조명숙 차상복 최정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열매감리교회 산곡교회 시흥교회 은혜신일교회 순화선교단미주지부 시은좌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강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